시세동향

수입개방화와 함께 중국산 약재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그 영향으로 모든 다른 약재들까지도 물동량이 활발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최악의 경기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기자 지난해 풍작을 거두었던 구기자는 생산량이 늘어난 탓에 가격 또한 지난해 7천5백~8천5백원 하던 구기자 도매시세가 현재 6천3백원 선에 머물러 있는 정도. 94년 재고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8월 햇것이 출하되면 가격은 더욱 떨어질 전망.

갈 근 근당 1천5백~1천6백원 선이던 갈근이 값싼 수입 갈근의 영향을 받아 시세 하락. 현재 거래되고 있는 도매시세는 1천원 선이 고작이다. 수입산은 6백g 당 5백원 선.

당 귀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통당귀 도매시세는 6백g당 5천~5천5백원 선. 절당귀는 5천5백~6천원 선.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맘때쯤 시세(7~8천원 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농민이나 중간상인들이 내놓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물량도 꽤 있을 것이라는 귀띔. 근간에는 사재기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 조만간 시세는 다시 오를 가능성도. 일당귀는 근당 3천7백원 선인데 물동량은 이미 바닥이 났다고.

강 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산지시세는 근당 5천~5천1백원 선으로 다소 내린 가격. 강원도 산지에만도 재고량이 3~6만근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물량이 워낙 적어 시세는 조만간 오를것이라는 현지민의 전언.

하수오 거래되고 있는 하수오 도매시세는 6백g당 6천~1만2천원 선. 최상품에서 하품까지 다양하며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

산 약 지난해 까지만 해도 근당 1만5천원 선이던 산약이 올 봄부터 시세가 떨어져 현재 영주에서 거래되고 있는 산약 도매 시세는 6천~6천5백원 선. 수입물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시세는 더욱 떨어져 5천원선을 밑돌 것이라는 산지민의 조심스런 진단.

백 지 산지에서 근당 3천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생산과잉으로 재고량이 많아 시세는 더이상 오르지 않고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듯.

천 궁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도매시세는 근당 7천~7천3백원 선이며 소매가는 8천원 선. 지난해 극심했던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이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거래부진한 상황.

만약 수입 천궁이 들어올 경우 시세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백출자급화 연구활발
현재 재배면적 5만9천여평

지난해부터 본 협회가 경북 영주시 재배농민들과 실시해 오고 있는 백출 계약재배 면적을 올해는 11만평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백출 계약재배 면적은 5만8천7백50여평(59농가). 백출 국내 소비량은 현재 1천1백t 정도이며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입개방화 영향으로 값싼 수입약재에 의해 국내약용작물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생약협회는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으로 수입의존 품목에 대한 자급화를 시도하고 있다.

백출 계약재배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

우수종자를 육성, 농가보급을 위한 백출 연구는 생약협회 생약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5일, 도상학 연구위원장(동덕여대 약학대 교수)를 비롯 안덕균 연구위원(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은 성분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영주시 백출 재배지를 직접 돌아볼 예정이다.

◇ 생약학회 주최로 열린 제18회 「한약개발국제심포지엄」

한약재 신약 가능성제시
생약학회 「한약개발심포지엄」서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각종 한약재가 지닌 약리활성과 효과들이 새롭게 조명됐다.

한국생약학회(회장 원도희)는 지난달 21일 롯데호텔에서 「과학의 날 기념 제18회 한약개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직까지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 속해 있는 암, 고혈압 등 여러 성인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최신 연구사례들을 소개하여 관심을 모았다.

「두충의 약리활성」을 발표한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김남재 박사는 최근 일련의 연구결과 두충 수피와 잎의 추출물이 강한 혈압강하작용을 지닌 것은 물론 alloxan 및 Streptozotocin 유발당뇨에 대해 유의할 만한 혈당상승억제효과와 함께 인슐린 회복효과도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수피의 대용으로 잎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같은 지적은 두충이 매우 고가이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수피를 사용하는 관계로 자원의 재 생산이 어려워 대체약물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는 맥락에서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동방약성을 다녀와서…

임 연 학 (생약협회 수석부회장)

동대문구청 이주인 국장님과 경동한약상가를 전통 한약상가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한약의 관광 명소로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약무과의 전우식 계장과 한약가에 위치한 한국 생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의사회 지부, 약사회 지부, 한약 도매협회, 한약협회 대표들로 구성된 경동한약가협의회 박호현 회장과 함께 경동한약가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중국의 중평원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중약재 집산지인 동방약성 안국시와 자매결연 협의겸 시찰을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계절 탓일까 광활한 평양에서 멀리 고비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하여 아침부터 하늘이 뿌옇다. 대륙의 공해와 더불어 어제, 오늘 뿌옇게 흩날리는 이 흙먼지는 내일이나 모래쯤은 우리나라에 황사 현상으로 다가가리라.

이른 시간 부사장이 영접나와 숙소내 식당에서 아침을 함께하고, 방문 일정에 따라 동방약성 개발 계획을 설명듣고 약성 중앙에 위치한 중약재 상설판매장을 견학하였다.

오백여평의 돔형으로 되어 있는 실내에는 하남성 일대에서 재배되는 중약재와 각 산지에서 모여든 각 지역별 특산 중약재를 우리나라 재래식 시장처럼 호객 행위를 하면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약재 보다는 약간 질이 떨어지는 약재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더러는 국내에서 보지 못한 약재들이 간혹 눈에 띄어 용도와 가격을 물어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약재 가공 공장을 둘러 보았다. 의외로 하나 같이 넓은 면적에 기계는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척, 절단 가공 하고 있는 기계들과 같았으나, 매우 녹이 슬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우리보다 앞서 가공 기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듯 하였고, 한쪽에서는 계속 대량으로 법제를 하고 있었으며 수출용 포장으로 약재들을 운송하고 있었다.

일행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송경태 고문님과 함께 최용두 사장의 작업장을 방문하였다.

중국인 아낙네 다섯명이 절단한 한약재의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창고에는 한국에 보낼 몇가지 품목과 일본으로 수출할 한약재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내륙 운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도 전통적으로 5일장(음력 1일 6일)이 서고 있었으며 장날은 농가에서 재배 및 채취된 각종 산물이 출하된다.

지난 장날 최사장이 미리 구매한 몇가지 종자를 시험 재배용으로 귀하게 보관하여 일행과 함께 하기 위하여 돌아왔다.

점심과 휴식을 끝내고 안국시가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유적지를 견학하게 되었다. 약왕묘 앞 거리는 한적하고 향을 파는 상인들만 즐비하였다. 근엄한 누각 현판에는 「顯靈河北」과 대문 위에는 「藥王廟」현판이 우리 일행을 맞이 하였다. 약왕묘는 우측누각과 좌측누각, 본청과 몇개의 부속건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밀답으로 된 십대명의 상과 연대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명의들의 무덤 발굴 현장 사진과 출토된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정원은 그들을 칭송한 비석들과 아기자기하게 잘 다듬어진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친근함이 풍기는 그들과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매결연 합의를 도출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동방약성 방문을 마치고 북경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광활한 벌판이 펼쳐지고, 괭이질 하는 여인네의 긴 그림자가 드리운다.

「君子 周而 不比 小人 比而 不周」

군자는 두루두루 사귀면서 편을 가르지 않고 소인은 편을 가르면서 두루두루 사귀지 못한다는 공자님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좀더 보고 싶은 곳이 있었으나 꽉 짜여진 일정으로 기회를 놓친것이 아쉽다. 언젠가 다시 오리라.

◇ 동방약성